전남 전통문화·관광 매력 일본에 알렸다

나라현 등서 한일우호증진 문화축제
道, 도립국악단 공연·홍보 부스 운영

전남도가 지난 3일까지 이틀간 일본 나라현과 오사카시에서 열린 한일우호증진 문화축제에서 전남의 전통문화·관광을 알리는 등 한일 간 우호 증진 활동을 펼쳤다.

한일우호증진 문화축제는 전남도,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나라현일한친선협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나라현 지방본부, 오사카왓소교류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반도 이주민이 불교와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역사적 교류를 기념하는 행사다.

전남도립국악단은 판소리, 산조 병주, 부채춤, 남도민요, 사물놀이 판굿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전남의 예술적 우수성을 일본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전남도는 또 행사 기간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를 널리 알렸다.

이 밖에도 일본의 전통 음악, 케이팝(K-POP), 제이팝(J-POP) 공연이 어우러져 두 나라 문화의 풍성한 상호작용이 이뤄졌다.

2일 '역사의 도(일본 나라현)' 축제와 3일 '사천왕사 왓소(일본 오사카시)' 축제 등 고대 한일 교류를 재현하는 퍼레이드와 문화행사는 두 나라의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반추했다.

2개 행사는 4세기에서 7세기 고대 백제 왕인 박사 등 사절단이 일본에 전파한 아스카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사카 불교 사찰인 시텐노지(사천왕사)에서 열린 사천왕사 왓소 축제는 고대 일본 왕실의 영빈관이었던 사천왕사에 '잘 왔소'라는 의미가 붙여진 것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문화축제를 통해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전남의 전통 예술과 관광자원을 일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12월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로 정기선도 운항하는 만큼 교류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 한·일 우호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인문도시 동구' 성과 사례발표 인문가치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한 '제1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경북 안동에서 열려 회원도시로 참가한 임택 동구청장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인문도시 광주 동구' 조성사업 성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세계 32개국의 시장단, 주한외교단,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인간다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열렸다. 〈광주동구 제공〉

전남농기원, 지식재산권 14건 기술이전

농업분야 연구개발 성과 특허기술 현장 사업화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그린씨에스㈜ 등 10개 업체와 14개 농업 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술이전되는 지식재산권은 일사·강우·온도센서 기반 관수 방법·장치, 식물재배용 온실 내부 설정 온도·외기온 편차의 지수형 모델을 이용한 환기창 제어방법 장치, 작업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선 제어 장치·시스템 등 특허 11건과 유자빵 성형틀 등 디자인 2건, Bugle 상표 1건이다.

농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성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은 스마트팜·농식품 가공 분야 기술로 농업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은 전남도내 기업 뿐만 아니라, 경기·경북·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도 이뤄져 전국의 식품 생산·농업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이전된 특허 기술이 상품화돼 업체 매출과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 농업 분야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민 518명, 한강 작품 필사한다

시립도서관, 이달 '필사' 이벤트

광주시립도서관은 4일 "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 필사하기' 행사를 11월 한 달 동안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표 작품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5·18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시민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민 518명을 선착순 모집해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필사할 수 있는 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 '필사 존'을 각각 운영한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작성한 필사를 한 데 모아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도서를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이달부터 도서 대출 권수를 1인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는 등 독서문화 향상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 작품 톺아보기 순회 강연을 마련한다.

15일 산수도서관에서는 이강선 교수가 '채식주의자', 16일 무등도서관에서는 허희 문학평론가의 '소년이 온다', 21일 사직도서관에서는 김형중 교수의 '작별하지 않는다'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참여는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하면 된다.

송경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노벨문학상 작가를 배출한 문화도시 광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른 독서 열풍을 광주시민 독서 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 수능 교통·안전 대책 추진

38개 시험장 1만6천846명 응시…5개 분야 세부계획 수립

광주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지원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수능은 오는 14일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실시되며 광주지역 수험생 1만6천846명이 응시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교통 소통 원활화 ▲119 구급대응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수능 시험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4주 동안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제거하는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수능 당일은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광주시·자치구 직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수능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오전 6시부터 7시30분까지 38개 버스 노선에 대해 총 78회 시내버스를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자치구 및 모범운전자회 등 497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을 지도하고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전용택시 무료 수송과 광주경찰청 순찰차 69대와 오토바이 6대를 활용해 수험생 긴급 수송을 지원한다.

시험장에서 응급환자나 안전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문 구급 자격자를 배치한다.

수능 종료 후 광주시는 충장로 등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 밀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아웃리치(위기청소년 구호)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의 안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 일자리정보망' 애칭 15일까지 공모

전남도·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4일 "7년 만에 새롭게 단장해 개통한 '전남도 일자리정보망' 홍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애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정보망은 구인·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 정보가 필요한 도민과 기업이 최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얻도록 나라일터, 고용24, 잡코리아 등 일자리 관련 공공·민간 기관과 연계해 종합정보를 제공, 회원 등록부터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공모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남도 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커뮤니티 이벤트 게시판에서 1인당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브랜드 확장 가능성, 친밀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1명) 20만원, 우수상(2명) 10만원, 참가상(100명) 5천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애칭은 '전남도 일자리정보망'과 병행 사용하고 홍보 자료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